
김문수 후보님. 또 거짓말 하십니까.

어제 김문수 후보는 충청남도 유세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선거 끝나면 싹 잊어버릴 거라는데, 저는 선거 때나 끝나서나, 거짓말을 시켜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 후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구에 출마하면서 “수성갑에 뼈를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낙선 후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에는 집이 없고 제집은 대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약속은 불과 2년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는 2018년 9월 대구 아파트를 팔고 다시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뼈는 두고 살만 왔냐는 ‘순살문수’의 시작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당에 들어온 지 24년이 조금 넘었는데 절대로당을 옮기지 않는다, 철새 정치는 절대로 안 할 것이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0년,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만들면서 탈당했습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경기도지사 사퇴를 고심한다고 밝혔다가 불과 이틀 만에 최종후보가 되면 사퇴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체 어느 대목에 진정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특히 선거 때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아 온 후보의 말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당장 불과 한 달 전에 외쳤던 한덕수 단일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알고 보니 가짜는 김문수입니다. “전광훈 구속에 안 울었다”도 거짓말, “나는 청렴하다”도 거짓말, “경기도 빛 줄였다”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공보물에도 가짜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랩처럼 나오는 김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극우 전광훈 목사,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과거 부정선거 주장. 김 후보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 5월 26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